

2025년 7월 8일(화)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8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디어담당관 영상미디어팀

유 형 : 홍보

사진유무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과장	하승민	051-888-1360
팀장	임진희	051-888-1383
담당자	변준철	051-888-1382

외국인의 눈으로 본 글로벌 도시 부산 이야기... 「다시 태어나면 여기, 나도 부산에 산다」 공개

- ◆ 부산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나의 부산살이'를 직접 소개
- ◆ 오늘(8일)부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영상 시리즈 공개... 첫 화는 일본인 '소노카'의 시선으로 본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이야기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적(글로벌) 정주 도시 부산의 매력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영상 콘텐츠 시리즈 「다시 태어나면 여기, 나도 부산에 산다」의 에피소드를 오늘(8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다시 태어나면 여기, 나도 부산에 산다」 시리즈는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의 부산살이'를 직접 소개하는 형식으로,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본 '부산만의 매력과 장점'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말 기준 8만3천401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2.5퍼센트(%), 전국 외국인 주민의 3.4퍼센트(%) 수준이다. 이번 시즌은 총 5편으로 기획됐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국의 부산 거주 외국인이 출연해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산의 일상과 매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 특히,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준의 시선에서 확장된 부산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담아냄으로써 기존 외국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문화, 언어, 경제적 편리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 **영상은 다큐와 브이로그를 결합한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구성돼 외국인의 시선으로 부산의 풍경과 정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 [시리즈 1편] 일본에서 온 ‘소노카’가 출연해, 부산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느낀 부산 문화·관광에 대한 솔직한 감정,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그리고 자신만의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진심 어린 이야기로 풀어낸다.
 - [시리즈 2편] 인도인 ‘프레뉴’가 일상생활 속, 부산의 최신 스마트 기반 시설(▲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혼잡도 표시 ▲인공지능 횡단보도 ▲미디어폴)과 데이터기반 도시(센서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도시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의 면모를 보여준다.
 - [시리즈 3편] 부산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멕시코인 ‘카를라’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 다문화가정지원정책 프로그램 중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에 참여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자 한다.

- **박광명 시 대변인은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진짜 '글로벌 도시 부산'의 현재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열린 도시, 살고 싶은 부산의 이야기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참고

관련 사진



